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9, No. 4. August, 2022. 499~506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2.39.4.499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은아†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2년 7월 13일 접수: 2022년 8월 20일 수정: 2022년 8월 23일 채택)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s

Eun-A Kim†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ongshin University
(Received July 13, 2022; Revised August 20, 2022; Accepted August 23, 2022)

요 약 :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연구대상은 G시와 J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173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기술분석, Pearson's correlation,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장마인드셋은 셀프리더십(r=.343, p<.001) 및 진로준비행동(r=.373, p<.001)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도(r=.515, p<.001)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β=.435, p<.001)과 성장마인드셋(β=.193, p=.005)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며, 진로준비행동을 32.0% 설명하였다. 이에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셀프리더십과 성장마인드셋의 함양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간호, 학생,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from November 1 to 30, 2021, and the subject of the study is 173 nursing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and J province.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6.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self-leadership(β=.435, p<.001) and growth mindset(β=.193, p=.005)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xplained career preparati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kea0815@naver.com)

behavior by 32.0%. Therefore, it suggests that a practical strategy for cultivating self-leadership and growth mindset is necessary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Growth mindset, Self-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의료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최근 COVID-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07년부터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를 필두로 하여, 2018학년도부터는 5년간 간호학과의 편입생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간호 인력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하지만, 2020년 신규간호사 1년 이내 사직률은 47.7%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불과 5년 사이 13.8%나 높아진 상황이다 [2]. 이는 간호서비스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와 더불어 신규간호사의 사직을 줄이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학령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간호학과 정원확대는 간호학과의 진입 문턱을 낮추었고, 학생들은 졸업 후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 깊은 숙려 없이 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에서는 이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마련과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을 의미하며, 진로결정 후 그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노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4], 적절한 진로준비행동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첫 직장에서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이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특성이 있기에, 학생들은 타과에 비해 비교적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6]. 따라서, 간호학과 졸업 후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 후 이직률이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이 교육과정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7],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성장마인드셋은 자신의 지능과 능력이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신념을 뜻한다 [8]. 개인이 비슷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동일한 과제에 대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개인이 가진 마인드셋의 차이라 볼 수 있고,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기회로 삼으며, 성취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를 즐기는 숙달 지향의 모습을 보인다 [8]. 즉,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자신의 능력의 가변성을 믿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의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상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서 그 수행을 위한 실천적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3],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성장마인드셋이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성향을 지닌 변임임을 고려할 때 [9],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독립변수로서의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전략으로, 전통적 리더십 보다는 자신의 성취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달성된 목표에 대한 보상 및 미달성 시의 방안을 스스로 정하는 자율성의 개념이다 [10]. 선행연구에 의하면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더 향상되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0,11,12] 즉, 진로준비행동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과정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주도적인 셀프리더십의 성향이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대학 시기는 발달과업 상 자아정체감을 찾기 위해 자신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며 성장하는 시기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위한 준비과정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더불어 변화되는 의료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간호사의 취업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이 진로목표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수반된 적극적인 행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은 정확하게 요구되는 능력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전략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3개의 간호학과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편의추출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회귀분석의 적정 표본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은 .05, 효과크기는 .15로,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변인은 8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 개수는 160개이었고, 탈락율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총 17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응답 설문지 중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5부를 제외한 후 173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대학과 학과의 절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한 뒤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 후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성장마인드셋

성장마인드셋은 Dweck [8]이 개발한 마인드셋 도구를 Park [13]이 번안한 것으로, 마인드셋 도구의 총 8개 문항 중 성장마인드셋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성장마인드셋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였다.

2.2.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 [14]가 개발한 도구를 Kim [15]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다.

2.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과 Kim [3]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척도 16문항에 Lee [16]가 2문항을 추가한 총 1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8였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정도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한 결과 Table 1과 같다.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성장마인드셋의 평균은 4.05점(SD=.64), 셀프리더십 평균은 3.52점(SD=.48),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3.32점(SD=.45)이었다.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평균은 5점 만점에 4.05점으로 성장마인드셋 점수는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 [17]의 연구의 3.24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 [9]의 연구의 3.26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졸업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수준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대학 시기에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입시위주 교육의 결과로 갖게 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고착된 시각을 탈피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변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선시 되어야 할 신념이라 할 수 있겠다. 셀프리더십 평균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셀프리더십은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Park과 Park [10]의 3.59점, Yoo [11]의 3.48점, Kim [12]의 3.40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국의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2012년부터 제시한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내에 리더십의 함양을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18], 이를 함양하기 위해 현재까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들을 지속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수준을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 [11]의 2.98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9]의 3.17점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학년별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Bae와 Sung [19]의 연구와 Kim과 Choi [9]의 연구에서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4학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t=-2.031, p=.044)과 학과 지원동기(F=4.395, p=.014)이었다. 24세 이상이 23세 이하에 비해, 적성과 흥미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주변의 권유로 인한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면, 24세 이상이 23세 이하에 비해, 그리고, 적성과 흥미에 근거해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주변의 권유한 의한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을 검증한 Kang [20]의 연구에서 연령 25세 이상이 21~24세 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학과 4학년 중 24세 이상은 복학 및 편입학 학생으로, 이들은 현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선택 분야 및 연령의 제약으로 인해 더 다양하고 절실하게 진로준비행동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되나, 추후 복학 및 편입학의 분류기준을 추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과에서 4년 가까이 학업을 지속했음에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과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결과를 확인한 바, 이들에게 적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

Table 1. Level of Growth mindset, Self-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73)

Variables	M±SD
Growth mindset	4.05±.64
Self-leadership	3.52±.48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32±.45

Table 2. Degre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Characteristics	Range	*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 / F (*p*) Scheffé
Sex	Female	149(86.1)	3.31±.45	−.703 (.483)
	Male	24(13.9)	3.38±.46	
Age	≤23	121(69.9)	3.28±.44	−2.031 (.044)
	≥24	52(30.1)	3.43±.47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51(29.5)	3.44±.41	2.546 (.081)
	Moderate	111(64.2)	3.28±.47	
	Dissatisfaction	11(6.4)	3.30±.35	
Economic state	High	12(6.9)	3.54±.35	1.447 (.238)
	Medium	144(83.2)	3.31±.43	
	Low	17(9.8)	3.32±.65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a]	51(29.5)	3.45±.34	4.395 (.014) a>c
	Stable job[b]	88(50.9)	3.31±.45	
	Another's advice[c]	34(19.7)	3.16±.56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73)

Variables	1 r(*p*)	2 r(*p*)	3 r(*p*)
1	1		
2	.343 (<.001)	1	
3	.373 (<.001)	.515 (<.001)	1

1. Growth mindset, 2. Self-leadership,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r=.343, *p*<.001) 및 진로준비행동(r=.373, *p*<.001)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도(r=.515, *p*<.001) 정적상관을 보였다.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았다. Kim과 Choi [9]의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Yoo [11]의 연구, Kim [12]의 연구, Bae와 Sung [1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성장마인드셋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진로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속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에도 맞서 싸울 수 있기에,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셀프리더십의 특성을 진로준비행동에 적용하면 진로의 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자발적 노력 유도를 예측할 수 있기에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3.4.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제 변수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변수를 확인한 결과, 연령과 학과지원동기 이었으며 확인된 변수는 더미변수 처리한 뒤 통제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의 가장 낮은 값이 .717로 모두 .1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분산팽창인자(VIF)의 가장 큰 값이 1.395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Durbin Watson 지수가 1.85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없이 독립적인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F=17.201(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320로 독립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을 32.0%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졸업학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셀프리더십(β=.435, p<.001)과 성장마인드셋(β=.193, p=.005)으로 모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이 성장마인드셋 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2.0%이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인 성장마인드셋과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능력인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직·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10,11,12,19]와 결과가 일치하였다. 셀프리더십은 개인마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책임과 자율이 주어질 때 형성되며, 교육과 학습으로 성장 가능하기에 [10] 취업지도 전략 방안의 하나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리더십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전통적인 리더십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고 리드할 수 있고, 개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셀프리더십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에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9]에서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17]에서 성장마인드셋은 온라인학습환경에서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정적영향을 주었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21]에서 성장마인드셋은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하는 의미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인간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같은 인지와 밀접하며, 생각과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73)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p)$
Constant	1.370	.256		5.345	<.001	.320	17.201 (<.001)
Age(≥24)	.078	.063	.080	1.251	.213		
Stable job	-.025	.067	-.028	-.377	.707		
Another's advice	-.197	.083	-.174	-2.366	.019		
Growth mindset	.135	.048	.193	2.840	.005		
Self-leadership	.408	.064	.435	6.415	<.001		

신념으로 인해 행동의 동기화가 유발될 수 있다.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한 발전가능성을 믿는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를 동기화시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스트레스의 난관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장마인드셋의 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화 및 그 과정에서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도 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장마인드셋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가 그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관심도의 향상에도 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 바 [22],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장마인드셋을 적용하여 이들의 성장마인드셋 수준을 파악하고, 성장마인드셋이 진로행동의 독립 및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성장마인드셋은 셀프리더십(r=.343, p<.001) 및 진로준비행동(r=.373, p<.001)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도(r=.515, p<.001)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β=.435, p<.001)과 성장마인드셋(β=.193, p=.005)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준비행동을 32.0% 설명하였다. 이에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셀프리더십과 성장마인드셋의 함양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도구를 사용하였고,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표본 전체를 대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성장마인드셋의 영향을 확인하고, 셀프리더십의 영향을 재확인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의 제고를 위해 추후 성장마인드셋 및 셀프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E. Y. Kim, Will the Nursing University Bachelor's Transfer System Solve the Nursing Manpower Shortage. [cited November 3, 2021], Cheongnyeon-uisa, Retrieved fro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21, (accessed July, 2nd, 2022).
2. Y. S. Kim, Only 1 in 2 Licensees is a Clinical Nurse…Lowest in OECD. [cited June 6, 2022], E-healthnews, Retrieved from: https://e-healthnews.com/, (accessed July, 2nd, 2022).
3.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er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 311-333, (1997).
4. S. K. Lee,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3, pp. 1-25, (2008).
5.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 62-71, (2011).
6. M. H. Jang, M. S. Kawk, J. R.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9, No.1, pp. 1-18, (2020).
7. M. 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Busan, (2021).
8. C. S. Dweck,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p.288, Random House, (2006).
9. H. M. Kim, A. R.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Vol.25, No.1, pp. 129-144, (2022).
10. S. J. Park, I. S.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3, pp. 67-87, (2021).
11. H. S. Yoo,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4, pp. 1843-1854, (2021).
12. K. H. Kim,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9, pp. 307-314, (2021).
13. J. S.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7).
14.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115, Prentice Hall, (1983).
15.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02).
16. M. S. Lee, *"Analyse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2003).
17. S. Y. Lee, J. Y. Kim,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2, pp. 567-578, (2021).
18. Kor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The Guideline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19. S. A. Bae, S. Y. Su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9, pp. 271-292, (2016).
20. H. S. Ka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tress Confrontation Strateg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3, pp. 141-155, (2010).
21. H. J. Park, H. K, Choi, "The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nd Growth Minds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Happiness among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 Health Nursing,* Vol.30, No.2, pp. 68-77, (2021).
22. J. L. Burnette, J. M. Pollack, R. B. Forsyth, C. L. Hoyt, "A Growth Mindset Intervention: Enhancing Student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44, No.2, pp. 1-31, (2019).